

변이 코로나 치명률 상승 전세계 긴장

파우치 소장 "위험성 받아들일 때" 글로벌 보건·의료정책 뒤돌릴 위기 팬데믹 다음 '변이와의 전쟁' 진단

코로나19 대유행의 전황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급변할 수 있다는 공포가 전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지는데다 더 치명적이 가까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추가로 나오면서 글로벌 보건계가 대응에 더 큰 부담을 안는 형국이다.

미국의 전염병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은 24일(현지시간) 미국 CBS방송 인터뷰에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더 큰 피해가 올 수 있다는 점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간 질병 전문가들은 바이

러스의 변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영국발 변이가 전염력은 강하지만 더 많은 중증환자나 사망자를 유발하는 증거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파우치 소장은 "영국 연구자들이 자세히 들여다 본 특정 연령 집단의 치명률이 1000명에 1명꼴이던 것이 1000명에 1.3명꼴로 올라갔다"며 "이건 큰 의미가 있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최신 자료가 영국에서 얘기하는 것과 일치한다"며 "미국도 자체적으로 자료를 분석하겠지만 영국 연구진이 매우 유능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믿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지난 22일 코로나19 대응 기자회견에서 자국 연구진의 조사결과를 인용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더 높은 수준의 치명률과 연계된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다.

파우치 소장은 "영국에서 주로 돌고 있는 변이가 독성, 즉 사망을 포함해 더 많은 손상을 끼치는

바이러스의 힘이 크다는 점을 이제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발 변이뿐만 아니라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에서 발견된 변이도 질병학자, 의료진, 정책 입안자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최근 남아공과 미국 대학들에서는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 기존 백신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발표됐다.

파우치 소장은 "일부 사례에서는 백신의 효과가 감소하지만 백신은 여전히 일반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일단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한국 방역당국도 영국과 남아공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를 향후 방역의 최대 변수로 지목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변이 바이러스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효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며 영국, 남아공발 변이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연합뉴스



러시아 경찰이 24일(현지시간) 모스크바 중심가에서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와 그의 지지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대를 체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발니 석방시위 번지는 러... "미국과 대화 준비"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 밝혀 "시민들 불법 집회 강력 반대"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이 "미국의 새 행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타스·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자국 국영TV 방송 '로시야'의 국정 홍보 프로그램 '모스크바-크렘린-푸틴'과의 인터뷰에서 "물론 우리는 대화를 성공적으로 성사시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대화는 양국 관계를 더 가깝게 하기 위한 가능성을 찾는 것"이라며 "미국의 현 행정부가 이런 접근법에 대해 준비가 돼 있다면 우리 대통령도 의심의 여지 없이 호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양국 관계는 러시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구금과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지지자 체포 문제를 두고 악화하고 있다.

나발니는 지난해 8월 러시아 국내선 비행기 내

에서 독극물 중독 증세로 쓰러진 후 독일 병원에서 치료받고 지난 17일 러시아로 돌아왔으나 귀국 직후 체포됐다.

미국은 전날 러시아가 당국이 나발니 석방 시위에 나선 지지자를 체포한 것을 비판하면서 이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이에 러시아 외무부는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관이 나발니 지지자의 시위를 조장했다고 비난하면서 "미국이 내정간섭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도 러시아 전역에서 나발니 지지자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AFP 통신은 모스크바에서 약 2만 명,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1만여 명이 시위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정치범 체포를 감시하는 비정부 기구(NGO) 'OVD-인포'에 따르면 모스크바에서 1398명,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526명 등 러시아 전역에서 시위자 3521명이 체포됐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또 나발니 측이 최근 '푸틴의 궁전'이라며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혼란을 계속 일으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익이 되겠지만 그들이 원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스가 지지율 반토막...80% "긴급사태 늦었다"

86% "도쿄올림픽 재연기·취소해야"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이 갈팡질팡한 가운데 스가 요시히데 내각 지지율이 급락했다.

아사히신문이 23~24일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스가 내각의 지지율은 지난달 19~20일 조사 때보다 6% 포인트 떨어진 33%였다. 지지율은 내각이 출범한 작년 9월 조사에서는 65%였는데 4개월 만에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스가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응답자 비율은 10% 포인트 상승해 45%를 기록했다. 스가 총리 취임 후 아사히신문의 조사에서 처음으로 내각 지지 여론보다 반대 여론이 높아

졌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지지율 하락의 주원인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63%는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으며 80%는 코로나19 긴급사태를 다시 선언한 시점이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응답자의 73%는 스가 총리가 코로나19 대응에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긴급사태 발령에 따라 외출 자제, 음식점 영업 시간 단축에 초점을 맞춘 방역 조치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은 54%를 기록했다. 응답자의 70%는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게 되더라도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반응했다. /연합뉴스

베이글 가게 앞에 멈춘 바이든 가족... "트럼프 팬 없던 일"

미사 참석 후 참깨 베이글 사들고 백악관 복귀...거리의 시민들 환호

"바이든 일가가 백악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베이글 가게에 들렀다. 도널드 트럼프는 자기 호텔 말고는 워싱턴DC 어느 곳도 들른 기억이 없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하고 첫 일요일인 24일(현지시간) 성당 미사에 참석했다가 돌아가는 길에 베이글 가게에 들르자 한 워싱턴DC 주민이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백악관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정오께 가족을 동행해 워싱턴DC 조지타운 지역에 있는 성삼위일체 성당을 찾았다. 미사가 끝나자 바이든 대통령은 가족을 태운 차량행렬을 백악관으로 돌아가다가 워싱턴DC의 유명한 베이글 체인인 '롤 유어 마더' 앞에 멈춰섰다.

차남 헨리 바이든이 차에서 내려 몇 분간 기다렸다가 미리 주문한 음식을 찾고는 다시 차에 올랐다. 바이든 대통령은 손녀들과 차에 머물렀다. 몇 분 안되는 짧은 정차였지만 워싱턴DC 주민들에겐 인상적인 장면이었다. 베이글 가게는 트위터 계정에 "일요일에 생긴 뜻밖의 일! 워싱턴DC가 주는 모든 것을 사랑할 행정부를 다시 갖게 돼 아주 신난다. 언제라도 다시 오시길"이라고 올렸다. 바이든 행렬에 대한 반가움을 표



백악관 입성 후 첫 일요일을 맞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조지타운 지역의 '롤리 트리니티'(성 삼위일체) 성당에서 미사를 드린 뒤 성당을 나서면서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시한 동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도통 워싱턴DC의 가게를 찾는 친근함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은 셈이다.

주문한 메뉴가 무엇이었느냐는 이용자의 질문에 이 가게는 "참깨 베이글과 크림치즈!"라고 답변해주기도 했다. 대통령이 다녀가면 가게로서는 유명해지면서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 대통령

이 주민들과 같은 음식을 먹으며 소통하는 소탈함과 친근함이 보여줄 수 있다.

이날 거리에는 바이든 대통령을 보려는 시민들이 모여들었고 바이든 대통령은 손을 흔들며 화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을 태운 차량 행렬이 지나가자 시민들이 환호하고 손뼉을 치는 영상이 트위터에 올라왔다. /연합뉴스

중국 금광사고 실종자 10명 수색 '안간힘'

사고 발생 16일째...11명은 구조

중국 금광 폭발사고 현장에서 생존자 11명을 극적으로 구조한 현지 당국이 사고 발생 16일째인 25일 실종상태인 10명을 찾는 수색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5일 관영매체 신화통신에 따르면 사오원루 응급관리부 광산구조센터 총엔지니어는 산동성 옌타이 치차 시 금광 사고현장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사고는 지난 10일 경내 폭발로 발생했다. 매몰된 22명 가운데 11명이 지하 580m 아래 한 지점에 모여있었고, 이들 중 사망한 1명을 제외한

생존자 10명이 전날 지상으로 구출됐다. 연락이 닿지 않았던 노동자 1명도 추가로 지상으로 나왔다.

사오 총엔지니어는 "구조대는 경도 아래로 내려가 수색 중이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실종 노동자 중 1명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 경도 아래쪽 구간에는 구조대원들이 고인 물을 건너가며 수색해야 하고, 경도 내부 공기도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광주문화신탁



조합원님과 함께한

광주문화신탁 창립 27주년

광주대표 서민금융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듣든금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평생어부바 신탁**



아파트담보대출
아파트 감정시세
최고 70~80%
추가신용대출 상담가능

담보대출
시세 **80%까지** **법인 100억**
개인 50억 가능
각종 부동산담보(아파트, 주택, 상가, 빌딩, 대지, 전·답, 임야 등) 및 신축자금(시설자금) 등

상생협력대출금
사회적 경제기업
대출금리 **2.28%**
대출대상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정부보증 햇살론대출
근로자 최대 **1,500만원**
(근로자 금액한도 기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지원)
자영업자 최대 **2,000만원**

광주문화신탁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선로 91번길 20-4
cu08171@cu.co.kr 1644-7990

문흥본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매곡지점 572-4150
침단지점 576-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동광주지점 264-4150